

증권사 3분기 순익 66% 급감 전망… ‘거래 절벽’ 직격탄

삼성증권 등 5개사 순익 전망 1.5조
개미 빚투·거래량 동시에 하락 영향
개인투자자 회전을 회복이 핵심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 작차가 3분기에 이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상반기 실적을 끌어올린 증시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거래대금과 개인투자자의 매매가 함께 위축되고 있어서다. 브로커리지와 운용손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며 주요 증권사의 3분기 순이익 전망치와 목표주가도 일제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금융투자·키움증권 등 주요 5개사의 3분기 합산 지배주주 순이익을 1조 5390억원으로 추산했다. 시장 전망치를 29.6% 밑돌고 전 분기보다 66.2% 감소한 규모다.

이는 증시 활황으로 2분기 국내 61개 증권사의 순이익이 5조 1914억원을 기록



여의도 증권가 전경

/메트로경제

한 것과 대조된다. 당시 주식 거래대금이 전 분기보다 59.9% 늘면서 수탁수수료가 34.0%, 자기매매손익이 45.8% 증가했다. 기업금융(IB)과 자산관리 부문까지 고르게 성장하며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82.1% 확대됐다.

하지만 3분기 들어 주가 상승세가 꺾이고 거래대금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실적을

떠받쳤던 브로커리지와 운용 부문이 동시에 위축되고 있다. 3분기 국내 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은 50조 9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43.4%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주요 5개사의 위탁매매 수수료는 39.3%, 트레이딩·기타손익은 4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둔화 우려는 증권업종 주가에도

선반영되는 모습이다. KRX증권지수는 지난 5월 6일 3362.84로 52주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이날 장중 1809.76까지 떨어졌다. 약 1년 동안 46.18% 하락하며 상반기 증시 호황과 실적 개선 기대를 반영한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다.

개인투자자의 거래 열기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8월 개인투자자 회전율은 109%로 이전 저점 수준에 근접했다. 증시 신용공여 잔고도 지난 6월 중순 38조원에서 최근 32조원 수준으로 6조 원가량 감소했다. 개인투자자의 거래와 빚투가 동시에 줄면서 증권사가 벌어들이는 매매 수수료와 이자수익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정기에금이 증가세로 돌아선 점도 증권사에는 부담이다. 지난 8월 은행 정기예금은 20조 3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가계 정기예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주식과 펀드 등 투자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했던 것과 달라진 흐름이다. 금리 상승으로 예금의 상대적인 매력에 커진 데다 증

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가계의 자금 운용도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증권업종의 반등 여부는 개인투자자의 거래 회전을 회복에 달릴 전망이다. 다만 금리 상승으로 차입 비용이 커지고 은행 예금 수익률도 높아진 만큼 개인 자금이 단기간에 증시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대금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배당수익률과 자산관리·IB 등 비위탁매매 부문의 경쟁력이 증권사별 주가 흐름을 가를 가능성이 크다.

우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재 증권업종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기로 판단되며 반등의 계기는 개인투자자 회전을 상상이 될 것”이라며 “과거 회전을 고점 이후 다음 반등까지 약 2년이 걸린 만큼 이번 회전을 하락 역시 당분간 횡보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불법리딩방, AI·자동매매로 계좌까지 개입

최근 5년간 신고·수사의뢰 3357건
금감원, 채널별 현황도 파악 못해

카카오톡·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번진 불법 리딩방이 인공지능(AI)과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앞세워 투자자의 계좌와 매매까지 개입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신고가 3300건을 넘어선 가운데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도 잇따라 적발됐지만, 금융당국은 불법 영업이 이뤄진 온라인 채널별 현황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신고는 총 3357건, 수사의뢰는 55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2년 1508건에서 2023년 846건, 2024년 444건, 2025년 373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186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수사의뢰는 2022년 199건, 2023년 183건, 2024년 52건, 2025년 88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에도 28건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2022년~2026년 7월 중 유료 리딩방 관련 민원 현황〉 (단위:건)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7월	합계
223	89	102	80	44	538

〈2022년~2026년 7월 중 미등록 투자일임 관련 적발 현황〉 (단위:건)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10	5	3	4	22

*2026년은 일제·암행점검 결과 취합중으로 추후 적발건수 확정·수사의뢰 진행 예정. /박성훈 의원실

금감원이 일제·암행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혐의를 직접 확인한 사례는 2022년 84건, 2023년 58건, 2024년 112건, 2025년 105건 등 4년간 총 359건이었다. 올해 적발 실적은 현재 점검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

돈을 받고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리딩방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5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223건, 2023년 89건, 2024년 102건, 2025년 80건이었으며 올해도 7월까지 44건이 접수됐다.

단순한 종목 추천을 넘어 투자자의 판단 영역까지 침범한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도 확인됐다. 관련 적발 건수는 2022년 10건, 2023년 5건, 2024년 3건, 2025년 4건 등 최근 4년간 22건에 달했다.

일부 업체는 AI와 자동매매 프로그램

을 불법 영업 수단으로 활용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A사는 AI 로보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투자 알고리즘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자동으로 거래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종목, 매매 시점과 가격, 리밸런싱 주기까지 구체적인 투자 판단을 대신했다.

불법 영업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와 점검, 수사의뢰 실적을 카카오톡·오픈채팅·텔레그램·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별로 구분에 관리하지 않고 있다. 어떤 채널을 통해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가 확산하는지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셈이다.

/허정윤 기자

개인 3조 끌어담고 외국인 8390억 팔았다

금투협 ‘8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지난달 개인이 장외시장에서 3조원 넘는 채권을 사들인 반면 외국인은 재정거래 유인이 약해지자 순매도로 돌아섰다.

금융투자협회가 10일 발표한 ‘2026년 8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3조 1891억원으로 전월보다 150억원 증가했다.

채권 종류별로는 국채를 1조 3694억원 어치 순매수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은행채 6726억원, 특수채 4532억원, 회사채 3865억원, 기타 금융채 306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개인의 누적 채권 순매수액은 22조 9642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움직임은 정반대였다.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채권을 8390억원 순매도하며 전월 1조 8120억원 순매수에서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각각 2460억원, 6740억원 순매도했다.

원화 강세와 통화스와프(CRS) 금리 상승으로 원화 금리와 CRS 금리 간 스와프 베이스가 좁아지면서 원화 채권을 활용한 재정거래의 매력이 낮아진 영향이다.

/허정윤 기자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잔액은 344조 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 4000억원 감소했다.

국고채 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일본 등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아 전 구간에서 올랐다.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지난달 18일 장중 4.751%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기준 국고채 금리는 3년물 3.838%, 10년물 4.313%, 30년물 4.527%로 전월 말보다 각각 8.0bp(1bp=0.01%포인트), 5.2bp, 2.0bp 상승했다.

지난달 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리며 두 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한 것도 채권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양도성에 금증서(CD) 수익률도 한 달 동안 17bp 오른 3.12%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체 채권 발행 규모는 76조 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 8000억원 감소했다. 국고채 발행은 7조 1000억원 늘었지만 특수채와 금융채, 회사채 발행이 줄어든 영향이다. 전체 채권 발행잔액은 3178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허정윤 기자

한투증권, 글로벌 운용사 3곳과 협력

피델리티·핍코·칼라일과 업무협약
공동 상품 개발·단기자금 운용 등

한국투자증권은 피델리티인태내셔널, 핍코, 칼라일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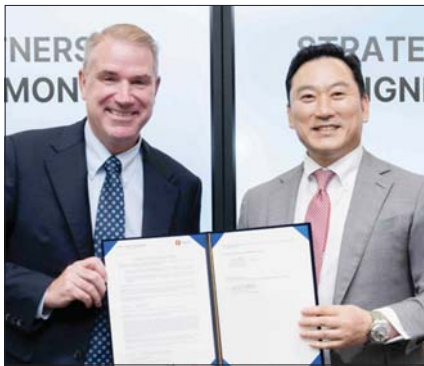
먼저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운용자산 약 7750억 달러 규모의 피델리티인태내셔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글로벌 거시경제와 주식·채권·멀티에셋 관련 리서치를 국내 시장에 독점 공급하고 공동 상품 개발과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첫 협력 상품으로 한국·중국·미국의 기

술 기업에 투자하는 ‘한·중·미 테크펀드’ 출시를 추진한다. 피델리티의 주요 투자 상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크(PB)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투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는 핍코·칼라일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었다. 글로벌 채권 전문 운용사인 핍코와는 단기자금 운용에서 협력한다. 핍코가 제공하는 글로벌 시장 전망과 주요 이벤트 분석을 한국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독점 콘텐츠로 제공하고, 관련 펀드의 국내 판매도 확대한다.

향후에는 핍코의 운용 전략을 활용하



한국투자증권이 7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세계적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사진은 김성한 한국투자증권 사장(오른쪽), 키스 메타스 피델리티 인태내셔널 사장. /한국투자증권

맞춤형 상품을 비롯해 개별운용계좌(SMA)와 랩카운트 등 개인별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AI 훈풍에 ‘HANARO ETF’ 수익률 182%

NH-Amundi자산운용, 국내 ETF 1위

NH-Amundi자산운용은 ‘HANARO FnK-반도체 ETF’가 연초 이후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고 1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해당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81.65%로 집계됐다. 이는 레버리지를 제외한 모든 국내 상장 ETF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HANARO FnK-반도체 ETF는 ‘Fn Guide K-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20종목에 투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으며 SK스퀘어, 삼성전기와 함께 주성엔지니어링, 이수퍼타시스 등 소재·부품·장비 기업도 편입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주는 올해 하반기 들어 높은 변동성과 함께 조정을 거친 이후, 8월부터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배경에는 AI 투자 수요를 각인한 소식들이 자리잡고 있다. 엔비디아는 AI가 텍스처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인 토큰의 경제적 생산성을 근거로 ‘연산이 곧 매출(Compute is Revenue)’이라는 구조를 재확인했다. /김아영 기자 aykim@